

밀원식물 산벚나무

(학명 : *Prunus sargentii*, 장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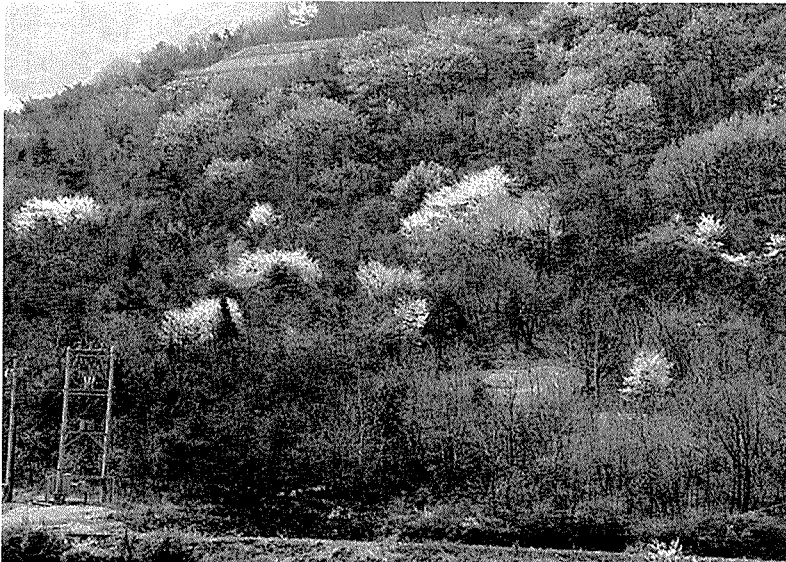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산벚나무는 바다와 가까운 산에 주로 자라는 낙엽교목으로 일본에도 분포하며 높이 20m 까지 크다. 산벚나무는 왕벚나무(*P. yedoensis*)보다 1주일 정도 늦게 꽃이 피는데, 꽃과 잎이 거의 동시에 나오며 꽃색이 왕벚나무보다 희다.

산벚나무를 영어로 mountain cherry 라고 하며, 중국에서도 대산앵(大山櫻)으로 부르니, 산에 자라는 벚나무임에는 틀림이 없나 보다. 그러나 산에 자라는 벚나무가 모두 산벚나무는 아니다. 왕벚나무는 제주도 한라산의 해발 500-900m 지역에 자란다고 하며, 울벚나무(*P. itosakura* var. *asendens*), 벚나무(*P. serrulata* var. *spontanea*), 개벚나무(*P. leveilleana*), 분홍벚나무(*P. serrulata* var. *verecunda*) 등도 산에서도 자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잡한 분류는 분류학자에게 말기고, 벚나무는 왕벚나무, 산벚나무, 겹벚나무(*P. donarium*), 수양(능수)벚나무(*P. leveilleana* var. *pendula*) 정도로만 분류하면 좋겠다. 겹벚나무는 꽃잎이 겹으로 왕벚나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피

며, 꽃잎이 많아 꿀벌이 꿀이나 화분을 채취하지 못하며, 수양벚나무는 수양버들 처럼 가지가 밑으로 드리워진다.

산벚나무는 왕벚나무 꽃이 진후 이어 피므로 꿀벌이 간다. 그러나 꽃에 향기가 없어 왕벚나무만큼 좋아 하지는 않는 듯하며 산에서 자라는 벚나무가 모두 산벚나무는 아니다.



5월의 산에 희끗희끗 꽃이 핀 큰나무는 대부분이 산벚나무다.

왕벚나무 씨를 새가 먹고 산에 와서 배설을 하면 그곳에서 발아하여 자라게 되는데, 산의 해발고가 100m 올라갈때 기온이 0.5도씩 내려가므로 같은 왕벚나무라도 산에서는 그만큼 개화시기가 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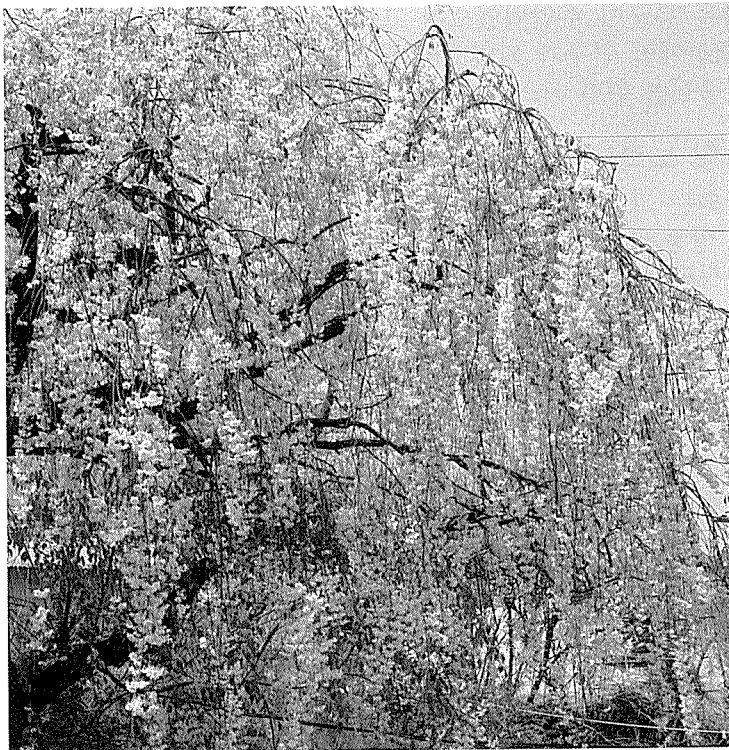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산벚나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것으로 볼때 고려 중기에는 우리나라 산에 산벚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 된다.



왕벚나무를 대목으로 산벚나무를 접목한 모습



산벚나무는 꽃이 희고 잎과 거의 같이 핀다.



수양겹벚나무 꽃